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家庭管理學科

高銀利

2007年 2月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良 順

高 銀 利

이 論文을 家庭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月

高銀利의 家庭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용어정의 4

II. 이론적 배경

- 1. 정서지능 6
 - 1) 정서지능 개념 6
 - 2) 정서지능 구성요소와 모형 8
 - 3) 정서지능 측정 13
- 2. 영성지능 14
 - 1) 영성의 의미 14
 - 2) 영성지능의 개념 18
 - 3) 영성지능 구성요소 및 측정 21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24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4
- 2. 측정도구 25
 - 1) 정서지능 검사 25
 - 2) 영성지능 검사 26
- 4. 분석방법 27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일반적 경향	28
2.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30
3.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의 차이.....	31
4.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과의 상관관계.....	32
5. 아동의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34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36
2. 제언.....	38

참고문헌.....	39
-----------	----

영문초록.....	43
-----------	----

부 록.....	4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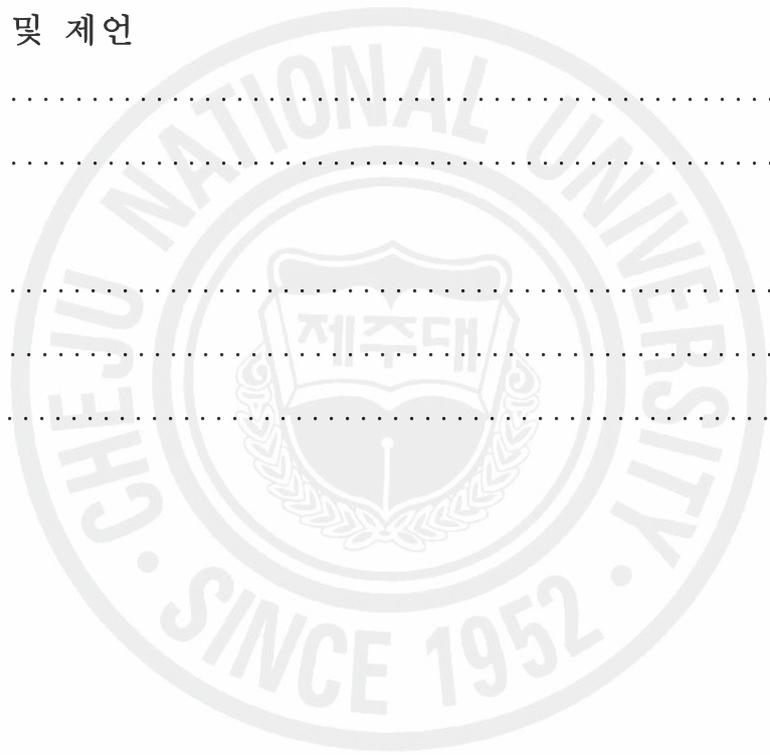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I-1>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9
<표 III-1> 연구대상 분포·····	24
<표 III-2> 정서지능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III-3> 영성지능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6
<표 IV-1> 아동의 정서지능 평균과 표준편차·····	28
<표 IV-2> 아동의 영성지능 평균과 표준편차·····	29
<표 IV-3>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30
<표 IV-4>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의 차이·····	31
<표 IV-5> 정서지능과 영성지능과의 상관관계·····	32
<표 IV-6> 영성지능에 대한 정서지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34

<국문초록>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관한 연구

고 은 이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양 순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지능의 전체 및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균형 잡힌 지능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A와 B초등학교 남녀학생 466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을 측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두 지능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좀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정서지능과 영성지능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은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교우와의 관계 및 자아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므로 정서지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영성지능에서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두 가지 지능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감정이입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통합적인 에너지에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이 모든 하위 변인들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개인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내적인 부분도 잘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수록 영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초월성과 관계성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및 통합적 에너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초월성에서는 정서인식이 정적영향을 그리고 관계성에서는 정서조절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는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정적영향을 그리고 정서조절은 부적영향을, 통합적 에너지에서는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정적영향을 그리고 정서활용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주관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서를 인식할 줄 알며 어려운 일 있을 때 현실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이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결과다.

그리고 정서의 인식과 정서활용을 잘 할수록 삶의 목적과 의미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지나치게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서인식을 잘 할수록 개인의 성장과 신체적 건강 및 내적 통합 에너지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서조절을 할수록 통합적 에너지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내적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두 지능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지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내재되어 있는 영성지능을 개발시켜 도덕성과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아동들은 급진적인 사회변화와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아동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가치관의 혼란, 무기력, 이기심, 도덕 불감증,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목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과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 지식 위주 가치관으로 인하여 공부만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아동들의 정서나 도덕적 가치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로 인하여 일부 아동들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Salovey & Mayer(1990)는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지능(EQ)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정서지능은 인지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을 종합하고 조화시켜 실현할 수도 있는 지능이다(문용린, 1997; 장미선, 2005).

Goleman(1995)은 현실 생활에서 인간사이의 상호이해와 자기이해의 측면인 정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 삶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전통적인 일반지능(IQ)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90%는 정서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

의 실제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지식위주의 지능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기는 자아 성장의 민감한 시기이면서 또한 사회·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가족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는 시기로 아동기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서지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언주(1996)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인격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조절하며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지능의 능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속에서 바람직한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서지능과 더불어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능이 영성지능(SQ)이다.

Steiner(1914)는 인간은 영적인 목적을 품고 세상에 내려온 존재들이며 그 목적을 꽃피우기 위해 시기별로 물질체와 감정체와 의지체를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성인들이 자연스런 성장 흐름에 맞추지 않고 인위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할 때 아이는 반항하고 비뚤어지기 시작하므로 아동의 성장을 위하여 '영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단순한 지식이나 문자교육보다는 자연 속에서 신체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새로이 구상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물질적인 조건으로만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영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양역관, 1999).

Zohar & Marshal(2000)은 '영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능적 관점에서 영성을 연구하였는데 인간의 지능에 관한 연구에서 지능의 중축은 지능(IQ)과 정서지능(EQ)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3의 지능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제3의 지능은 영성지능(SQ)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인간지능이며 영성지능은 일반지능과 정서지능이 효과적으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으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설명하였다(조용기, 2006 재인용).

윤세중(2003)의 연구에서 인간은 신체와 정신과 마음 뿐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이며, 영성은 현재의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이외의 또 다른 환경을 볼 수 있고 현실을 뛰어 넘어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지능(IQ)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며, 정서지능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영성지능은 ‘내가 애초에 이런 특정한 상황에 놓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이 상황을 바꿔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하고 묻게 된다.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이 균형 잡힌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두 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Erikson(1975)의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제 4단계인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에 있으며 자아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에서 학습의 기회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성실하게 완수하면서 근면성의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에게 기술과 과제를 부여하며 이를 적용할 준비를 하게 된다(정옥분, 2004).

또한 아동은 사회적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며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생각과 동기와 위계질서를 알게 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상호관계에 대한 정신적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기의 정서지능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자아성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이 내적 잠재 능력인 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을 이해하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

다.

Adler는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업은 일과 여가, 우정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 후 수십 년간의 연구들을 통해 이 세 가지 주요 인생과제야말로 개인의 건강과 안녕에 핵심이라는 입장을 더욱 굳혔다. Mosak와 Dreikurs(1967)는 연구를 통해 아德勒가 미리 암시하였던 네 번째 과제인 영성과 다섯 번째 과제인 자기지향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인생과제인 영성은 우주와 신에 관련된 개인의 영적 자아를 다루는 것이며, 다섯 번째 과제는 자기지향과제인데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를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공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인생 다섯 가지 과제 중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Witmer와 Sweeney 그리고 Myers가 아德勒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안녕의 바퀴’에서 첫 번째 과제로 영성을 설명하고 있다(노안영·강영신, 2003, 재인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영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영성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지능과 21세기에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영성지능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지능의 전체 및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균형 잡힌 지능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용어정의

인간의 다양한 지능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세 가지 영역의 지능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능(Intelligence quotient; IQ)

지능이란 일반지능에 해당되는 말로서 지각력, 분류능력, 공간 인지력, 추리

력,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등 인간의 전반적 인지능력을 나타내는 지적 능력이
다.

인지능력은 정서와 관련된 특성을 제외한 전반적인 것을 말하며 종합 인지능
력검사에 의해 산출되는 인지능력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지수를
'IQ' 라고 표기한다.

2) 정서지능(Emotional Quotient; EQ)

정서지능은 감성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
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정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서
적, 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EQ' 라고 표기하였으며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로서는 정서
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
다.

3) 영성지능(Spiritual Quotient; SQ)

영성지능은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 영혼의 지능,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
를 완전하게 하여 자아나 의식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지혜와 연관된 자기의 깊
은 부분에 존재하는 지능,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적으로 발견하는 지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Q라고 표기하였으며 영성지능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초월
성, 관계성, 삶의 의미와 목적, 통합적 에너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지능

1) 정서지능의 개념

William James가 ‘정서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래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서의 개념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20세기 초까지도 정서는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김경희, 1996, 재인용).

정서란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상태를 나타내며 정서적 반응들은 규범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서는 단순하게 감정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정서는 감정보다 합리성, 적절성, 적합성과 같은 규범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1996)은 정서지능이란 이성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거나 억압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감성능력, 좌절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들의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근심으로 인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과학적 구인으로 정서지능을 개념화한 연구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은 Salovey & Mayer(1990)의 정서지능이다. Salovey는 정서지능은 고차원적인 정서적 혹은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IQ와 대비되는 용어인 EQ를 감성지능이라 하는 것보다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김경희 · 김경희, 1998).

Salovey & Mayer(1997)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정서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서지능은 일종의 사회지능으로서 전통적인 지능연

구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서와 지능을 결합시켜서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 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서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아는 세 가지 정신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 및 이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인식, 평가, 표현하는 능력과 정서가 인지를 촉진하는 경우 감정에 접근하고 감정을 발생시키며,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포함하게 된다(Salovey & Mayer, 1997, 장미선, 2005 재인용).

Salovey & Mayer는 정서지능의 기초를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에서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 지능, 운동 감각적 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 지능 그리고 최근 연구대상인 자연지능과 영성지능 등 9가지 지능 중에서 개인내 지능(Intra Personal Intelligence)과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을 포함시켜 정서지능을 연구하였다(문용린, 1997).

Gardner는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은 어린이는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종래의 획일적 지능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은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여러 상징체계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지능이론이 언어적 지능과 논리 수학적 지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가정에서 그 외의 지능이 우수한 어린이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 지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무엇이 사람을 동기화시키는 지 알게 되며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서로 협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지능을 구성하는 능력은 각 개인간의 차이점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성향·동기·의도를 알아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개인내 지능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감정의 종류와 범위를 구별해 내고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높은 개인내 지능을 가진 사람은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범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한다(이옥형, 1997).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의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정서지능’이라는 저서를 통해 Salovey & Mayer의 정서지능을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규정하여 설명하였다(우은숙, 2004).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으로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알며 생활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서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정서지능 구성요소와 모형

Salovey & Mayer(1990)는 초기에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서지능의 개념을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초기 모형에서는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서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3가지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 구성요소들은 정서 정보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능력과 유형에서는 개인차가 나타난다.

이들은 초기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타당하고 정교한 정서지능의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최근 모형은 종전의 정서지능 모형을 3영역 10요소로 구분한 것과 달리 4영역 4수준 16요소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서지능 검사도구 내용에 포함되는 이 새로운 모형을 요약하면 다음 <표 II-1>와 같다.

<표 II-1>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영역	수준
I 정서의 인식과 표현	자기의 정서를 파악하기 자신의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표현된 정서들을 구별하기
II 정서의 사고 촉진	정서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의 우선순위 정하기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취하기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촉진하기
III 정서지식의 활용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이해하기
IV 정서의 반영적 조절	정적 부적 정서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자신의 정서에 거리를 두거나 반영적으로 받아보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들여다보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

(곽윤정, 1997; 강민수, 2001, 재인용)

이 새로운 모형은 두 가지 점에서 종전의 모형과 크게 다르다.

첫째, 정서와 사고를 좀더 명백히 관련시켜 한편으로는 정서지능과 일반지능의 공통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지능과 변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능력의 중요성에 따른 위계와 복잡성 증가에 따른 발달수준으로 배열했다는 점이다. 수정된 모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서의 지각에 대한 인식과 표현

정서지능의 가장 낮은 수준인 이 영역은 개개인이 정확하게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정도와 관련되며 정서상태를 파악하고 내적 감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또한 각 개인이 규정할 수 있는 정서와 정서적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관련이 있으며 유아기에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에서 출발하여 타인이나 무생물 대상의 정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나 조작된 표현에도 매우 민감하다.

Goleman(1995)은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며 이는 통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대부분의 심리요법은 이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기정서 인식은 ‘나쁜 감정을 떨쳐버리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 격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알고 주위 상황을 해석하고 상대의 요구나 정서상태에 맞는 반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정서는 사회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서에 대한 사고 촉진 영역

이 영역은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은 지능을 활성화하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으로서 정서의 지적인 처리과정을 돕는 정서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자신의 사고과정을 형성하고 이를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정서가 사고에 기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위급하고 중요한 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적인 처리과정을 원활하게 하며, 둘째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서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일과 다른 형태의 추론이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기분에 의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정서지식의 활용영역

이 영역은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관련되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복잡하고 상반된 정서 즉 예를 들어 사랑과 미움 같은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를 인간관계에서도 활용하게 된다.

④ 정서의 반영적 조절

이 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으로서 정서적·지적 성장과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정서와 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서의 의식적인 조절은 정서지능에서 가장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조절 대상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정서와 행동이 구분된다는 것을 내면화하기 시작하고 정서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정서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능력은 그 정서에 대한 정보와 활용성을 판단함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Salovey & Mayer의 초기모형과 수정모형, 그리고 Goleman의 정서지능의 요소를 포함한 문용린(1996), 강희진(2004), 장미선(2005)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서 개인이 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난 것인지 또는 우울한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은 정서 지능의 다른 요인들 즉 정서표현 능력과 정서조절 능력 그리고 정서활용 능력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다.

정서인식 능력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단서로 구분할 수도 있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때에는 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측면 즉 예를 들어 목소리나 말투 또는 표정 등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포함된다.

② 정서표현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또는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정서표현과 함께 타인의 정서표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감정이입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즉 감정이입은 타인의 주관적 경험을 지각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고통을 자기 자신 내에서 동일한 감정으로 재경험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당사자가 느끼는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감하고 구분된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할 줄 아는 감정이입 능력은 사람을 사귀는 기술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는 ‘이타성’이 생기므로 감정이입은 도덕적 원리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④ 정서조절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조절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

하고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의 비율을 높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어려운 역경을 좀더 쉽게 극복한다.

정서지능에서 정서조절은 감정이나 기분상태를 처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처리 과정의 능숙도에 따라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한다. 이는 정서조절 능력이 기분 상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 주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능력인 정서지능의 구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정서를 잘 조절함으로써 상대방을 동화시킬 수도 있다.

⑤ 정서활용

정서활용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 활동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조절하는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정서지능 측정

정서지능을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정서라는 개념 자체가 복합적일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IQ와 같이 몇 개의 하위 검사 점수를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IQ와 같이 정답을 아는가 또는 모르는가라는 식의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지필식 검사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정도나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한 후 개인간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정서에 서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에서 정서지능 측정은 주로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곽윤정, 1997).

2. 영성지능

본 연구에서 영성지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영성(Spirit)’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성의 의미

영성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성은 라틴어 spiritus(spirit)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사전적인 의미는 정신적임, 영적임, 혹은 정신적 경향, 정신성, 영성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신활동의 근원이 되는 실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실체’, ‘참된 목적’, ‘사물의 근본’, ‘사람의 지 정 의를 움직이는 근원, ’육체에 생기를 주는 것’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것은 영(Spirit)을 ‘신의 속성(What God is)’에 입각하여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Matter)’에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서의 ‘정신’을 뜻한다.

따라서 영성은 특정한 종교의 정신이나 사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모든 종교적 사상 더 나아가서는 한 시대에 뛰어난 인물의 정신과 삶에도 적용된다. 최고의 가치와 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수한 영성이 있을 수 있다(유기영, 2005).

종교의 영성 개념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인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며 사랑스런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불교의 영성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영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교에서 영의 개념은 조상들의 혼백으로서 ‘하늘’과 연계하여 연합할 수 있는 근원이며 영성이란 교육을 통해 조상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혜정,

2002; 이미라, 2002).

철학에서 영성은 회랍 사상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연관이 깊다. 플라톤과 플라톤 주의자들은 우주전체를 몸, 영혼, 정신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보다 높고 숭고한 순수 정신적인 이념세계 곧 이데아(Idea)의 세계로 고양하려는 생명의 상승적 충동을 영성으로 보았다(조용기, 2006).

Jung(1938)은 모든 인간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였으며 영적인 자각없이 혹은 영적 고통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는 인간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지적 또는 도덕적 통찰만으로는 인간 딜레마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인간은 심리성적·심리 사회적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분명하게 심리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aslow(1971)는 인간의 욕구단계 이론에서 영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감의 욕구, 인지적·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처럼 각 단계에 따른 욕구가 단계별로 충족되어야 인간은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영적인 삶 즉 창조적이며 종교적이고 철학적으로 가치 있는 삶은 인간 본질의 한 부분으로서 단순한 자기 실현자와 초월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초월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능력 뿐 아니라 자아를 넘어 자기(self)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사랑스럽고 경외심이 우러나는 태도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신성함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인 건강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조사하여 '인간성의 보다 고차원적 범위'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명상 또는 요가의 상태 그리고 다른 종류의 다양한 의식상태와 같은 현상으로서 이 모든 것은 초월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Mille(1983)는 홀리스틱(Holistic) 교육에서 영적 지식을 강조하였다. 영성은 우주의 생명체와 무생명체 모두에 존재하는 통일성으로서 전체성이며 모든 것들을 연계시킨다고 하였다. 이런 영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며 나와 이웃 그리고

모든 인류와 동식물 및 무생물 모든 것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고 하였다

최상순(1991)은 영성을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서 인간 내적자원의 총체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 및 상위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며 신체, 영혼, 마음을 통합하는 에너지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현실을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복자와 강경아(2000)는 영성을 인간 내적자원의 총체로서 의식적, 감성적, 도덕적, 지적, 신체적 가치들의 원리를 창출해내는 삶의 원리와 같다고 하였다. 또한 조성자(2000)는 영성을 인간의 가장 고상한 미덕인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개방성으로 보았으며 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축적하기보다는 나누게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게 하며 폭력보다는 평화롭게 살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Schneiders(2001)는 영성을 “초월적인 삶 혹은 내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내지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존재론적인 용어”이며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 외에 영성은 인간의 전체성(whole)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성에 대한 연구는 영적 경험의 모든 측면들 즉 육체적, 심리적, 역사적, 정치적, 미적, 지성적, 사회적, 종교적 경험들이 모두 영성 분야에 통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조은하, 2001).

영성과 종교의 개념은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Peteet(1985)은 종교는 신앙의 외적 표현으로 영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믿음, 윤리강령, 전례행위 등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대의 문화적 가치나 개인적 철학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영성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존재와 인식을 포괄하는 인격의 한 부분으로서 그 핵심은 본연의 내면적 욕구로서 삶의 의미와 목표의 추구에 있다(이혜정, 2002).

여은선(2004)의 연구에서는 영성의 신경학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1990년대 초반에 신경심리학자 Michael Persinger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Ramachandran(1997)과 그의 연구팀이 인간의 두뇌에 존재하는 ‘신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뇌의 측두엽에 있는 신경 연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영중추가 영적·종교적 화제를 다루는 토론에 노출될 때마다 양성자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Ramachandran의 연구는 이 ‘신 영역’이 영성과 관련된 자극이나 사고과정에서 실제로 활동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신 영역’은 신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뇌가 ‘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또 광범위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준다.

둘째, 1990년 오스트리아 신경학자 Wolf Singer의 ‘결합의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뇌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합하고 의미를 갖게 하는 일을 전담하는 신경과정, 즉 경험을 글자 그대로 한데 ‘결합시키는’ 신경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뇌 전체에 걸친 결합적이고 동시적인 신경 진동에 대한 Singer의 연구 이전에는 신경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은 모두 오직 두 가지 뇌신경 조직만을 인정했다.

뇌신경 조직의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는 순차적 신경 연결로서 이는 IQ의 기초이다. 순차적으로 연결된 신경 경로는 뇌가 규칙을 따르고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형태는 신경망 조직으로서 수 만개에 이르는 뉴런 다발이 다른 대단위 신경다발에 복잡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신경망이 감정 주도적이고 형태 인식적이며 습관형성에 관여하는 EQ의 기초다.

결합적 신경 진동에 대한 Singer의 연구에서 제3의 사고 형태인 결합적 사고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왜”라는 질문을 다룰 수 있는 제 3형식의 지능인 SQ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경열(2005)연구에서 James(1902), Jung(1938), Maslow(1964), Assagioli(1965)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영성은 인간 본성의 역동이며 인간의 전인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동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영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 이유는 영성에 대하여 영과 영혼이 같다고 보는 모더니즘적(Modernism) 사고와 영과 영혼을 다르게 보는 포스트 모더니즘적(Postmodernism) 사고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성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힘으로써 자신의 전인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신념이며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종교적 의미 이상으로서 인간의 전체성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내적자원의 총체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상위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와 조화를 이루고 한계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영성지능의 개념

인간의 지능은 일반지능(IQ)과 정서지능(EQ) 이 두 가지의 결합만으로는 지능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뿐 더러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파악하는 영성과 상상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인간지능에는 “제 3의 지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영성지능(SQ)이라고 부른다. 영성지능이란 인간이 실존적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지능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삶을 광범위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을 말한다.

영성지능은 초개인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Jung(1954)은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고 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누적되는 기억, 충동, 원망 등 개인에게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집단 무의식은 종종 단위로 전개되는 원시적 과거사와 무의식 심층에 그대로 축적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자기,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원형으로 나타나며 초개인적 경험의 토대가 된다. 꿈, 종교 의식, 상징, 신비적 경험들을 통하여 비지시적으로 이 원형들을 경험하는 것은 지시적인 경험의 원형이 되기도 한다. Jung은 정신건강의 신호로서 노이로제를 제거하는 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영적경험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Gardner(1983)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영성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인이 그 영역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능력이나 특질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영성지능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미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삶, 사랑,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넓은 세계나 우리의 이해 능력 밖에 존재하는 신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우주적인 또는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둘째, 영성지능은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이다.

셋째, 영성지능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삶이나 간디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신, 우주와 더 깊은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문용린, 1996).

Zohar & Marshall(2000)은 발달적 스펙트럼 모형에서 전개인적 발달단계와 개인적 발달단계, 초개인적 발달단계로 구분하였고 이 세 가지 의식 발달단계는 영성지능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였다. 발달적 스펙트럼에서 논의한 세 가지 의식 발달단계의 차원을 Willber(1983, 1995)는 좀 더 세분화 하여 영성지능을 설명하였다. 그는 의식수준을 7단계로 나누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태고적 수준(archaic level)으로서 의식의 발달의 기초로서 신체적 감각, 감성적·성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는데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 요구에 지배된다고 하였다.

이 태고적 수준은 Maslow(1971)의 생리적 욕구수준과 Kohlberg(1984)의 벌과 복종에 의거한 1단계 도덕수준과 일치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마술적 수준(magical level)로서 개인은 단지 신체적 욕구에만 반응하지 않고 사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수준은 자신의 생각에 물리

적인 힘이 있다거나 자신의 생각이 실현된다고 믿는 경향이다. 이는 Maslow의 안전욕구단계와 Kohlberg의 인습적 도덕성 단계인 3, 4단계와 일치한다. 이 단계에 있는 개인은 개인적 인간관계의 순응에 중심을 둔다.

세 번째 단계는 신화적 수준(mythical level)으로서 개인은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만 추상적 추론은 불가능하다. 이는 Maslow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 단계와 Kohlberg의 인습적 도덕성의 3, 4 단계에 해당한다.

네 번째 단계는 합리적 수준으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며 가설을 지지하거나 기각하는 다양한 변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 시기는 Maslow의 자기 존중단계와 Kohlberg의 후인습적 도덕성 단계와 상호연관이 있다. 위의 4가지 단계는 개인적 수준의 의식수준을 나타낸다.

Willber가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여 세 가지 수준을 추가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섯 번째 단계인 영혼적 수준은 합리적 사고 수준을 초월한 최초의 수준이다. 이는 마음이 혼으로 전환되는 단계로서 개인의 능력을 종합하는 고차원적 질서를 추구하며 연관을 맺고 진리와 관계하고 관념을 조정하여 개념을 통합한다. 부분을 통합하여 전체를 보는 통합적인 것이다. 이런 통합적 능력은 의식의 본질적 특징이면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영성지능이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는 미세적 수준으로 Maslow가 자기 초월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는 혼이 영으로 전환되는 단계인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과거의 원대한 성자들이 수행을 쌓아 얻는 통찰이다. 이 수준에서 인간은 최고차원의 직관을 경험하게 되는데 Gardner는 참선, 초월상태의 경험, 초자연적인 것들을 눈앞에 떠올리는 것, 영적, 순수 이성적 현상과 교감을 통해 영성지능의 한 특질로서 존재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일곱 번째 단계는 원인적 수준으로서 이는 우주를 초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모든 존재에 대해 애착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상태를 말한다. 즉 최고의 초개인적 발달수준이다. 경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초월하고 주체는 자기가 되고 객체는 타인이 되므로 주체와 객체가 통합되고 우주와 하

나 됨을 인식하는 최고의 정체성을 말한다(조혜정, 2001; 여은선, 2004).

조혜정(2001)은 인간이 영성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유연성과 상상력 그리고 창조적 자발성이 요구될 때 바로 영성지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성지능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감각을 갖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며 고통이나 즐거움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것은 가족, 친구, 공동체, 종교, 우주로 확대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개인으로 하여금 내적통합을 하도록 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그 한계를 초월하여 의식의 최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성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영성지능 구성요소 및 측정

영성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Elkins, Hedstorm, Hughs, Leaf와 Saunders(1988)은 영성 지향척도에서 영성의 하위 영역을 초월적 차원,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인생의 사명, 인생의 신성함, 물질적 가치, 이타주의, 이상주의, 비극적인 것에 대한 자각, 영성의 가치로 구분하였다.

Burkhardt(1989)는 영성을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하면서 영성의 속성으로서 드러나는 신비, 조화로운 관계성 및 내적 강인함을 들었다. 드러나는 신비는 삶의 불확실한 부분 혹은 신비스런 경험을 처리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고 초월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조화로운 관계성은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실현이 나타나고 타인과의 조화 안에서는 사랑, 봉사, 용서 및 상위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내적 강인함은 개인의 내적 자원, 의식, 자각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Howden(1992)는 영성의 속성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통합적 관계성과 초월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준거로서 삶의 이유와 의미 및 목적 진술, 성취 그리고 미래지향적 성향과 내적 자원에 대한

경험적 증거로 내적 강인함, 내적 평화, 자아 존중감 및 자신에 대한 파악을 제시하였다.

Haase(1992)는 연구에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본성인 영성은 각 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되므로 영성의 대체 개념으로 영적관점을 사용하였다. 그는 영적 관점을 자신보다 더 큰 힘과 상호 연결되는 느낌 혹은 믿음에 기초하여 통합적이고 기초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영적 관점의 선행조건은 영성이며 촉진 요소들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지혜 및 중요한 생활사건이라고 하였으며 주요 속성은 관계성, 믿음, 창조적 에너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성지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연구에서 Howden의 영성척도를 한국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참조하였다. 영성의 구성요소를 조화로운 관계와 초월성 그리고 내적 통합과 삶의 의미와 목적 네 가지 차원으로 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화로운 상호관계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며 그 범주에는 자기 자신, 타인과 자연 및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는 자아 존중감, 자아성취 및 자아인식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랑, 봉사, 화해 및 용서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② 초월성

일상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보는 능력으로 그 범주에는 자기 자신, 타인, 상위존재를 포함하고 자기치유, 승화, 안녕의 추구, 현실상황의 극복을 의미한다.

③ 통합적 에너지

힘과 내적 자원의 두 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과 변화, 건강 및 내적 평화를 의미한다.

④ 삶의 의미와 목적

개인의 내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주관하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제 공함으로써 가치관을 형성하고 도덕적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적 있는 삶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4가지 속성 중 조화로운 관계성과 초월성을 형이상학적 측면으로 그리고 통합적 에너지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실존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형이상학적 측면은 높은 존재 혹은 자신을 능가하는 힘에 대한 초월적인 관계이고 실존적 측면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계되는 역동적인 기능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차원의 영성 개념은 속성상 관계성의 범주에서 상위 존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실존적 차원의 영성은 사회적 및 환경적 관계를 나타낸다.

형이상학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로서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실존적 차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 삶의 질을 통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궁극적 가치와 경험 그리고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또한 대인관계는 사랑과 용서와 믿음의 표현에 기본을 두고 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절대자, 최고의 가치, 믿음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차원과 자신의 존재 의미 관계, 환경 등과 관련된 실존적 차원으로 인간의 영성을 설명할 수 있다(최상순, 1999).

Ⅲ. 연구 방법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사회·정서 발달의 민감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영성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영성지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정서지능과 영성지능 측정을 위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된 제주시내 A와 B초등학교 6학년 남녀 전체 4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대상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 분포

(단위: 명)

학교	성별		전 체
	남자	여자	
A 초등학교	115	109	224
B 초등학교	129	113	242
총합	244	222	466

예비조사는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정서지능 검사

정서지능 검사도구는 문용린(1997)이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용으로써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등은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는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정서활용은 2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서지능의 5개 영역에 대한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 표 III-2> 정서지능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정서인식	8	1~5, 13~15	.615
정서표현	7	6~12	.629
감정이입	7	16~22	.656
정서조절	15	23~37	.799
정서활용	10	38~47	.651
전체	47		.825

2) 영성지능 검사

영성지능 측정도구는 Howden(1992)의 영성지능 하위척도인 관계성, 초월성, 통합성, 삶의 의미와 목적의 4차원과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형이상학적 측면과 실존적 측면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혜정(2002)이 재개발한 영성척도 중 3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1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하위영역은 형이상학적 측면과 실존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형이상학적 측면은 초월성과 관계성으로 실존적 측면은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통합적 에너지로 모두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영성지능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한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영성지능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수	문항구성	신뢰도	
형이상학적 측면	초월성	5	1, 4~5, 7~8	.603
	조화로운 관계성	5	2~3, 6, 9~10	.590
실존적 측면	삶의 의미와 목적	5	11, 14, 17~19	.606
	통합적 에너지	4	12,13,15,16	.735
전체	19		.749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둘째,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일반적 경향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 <표IV-2>와 같다.

<표 IV-1> 아동의 정서지능 평균과 표준편차

(N=466)

하위영역	M	SD
정서인식	2.20	.29
정서표현	1.98	.36
감정이입	2.19	.37
정서조절	1.81	.37
정서활용	1.51	.24
전체	2.00	.21

주)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은 3점 척도이며, 정서조절은 2점 척도다.

<표 IV-1>에 의하면 아동의 정서지능 전체 평균점수는 2.0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 2.20점(SD=.29), 정서표현 1.98점(SD=.36), 감정이입 2.19점(SD=.37), 정서조절이 1.81점(SD=.37), 정서표현이 1.51점(SD=.24)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이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를 인식하는 수준과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면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 아동의 영성지능 평균과 표준편차

(N=466)

하위영역	M	SD
초월성	3.39	.61
관계성	3.38	.57
삶의 의미와 목적	3.44	.72
통합적 에너지	3.48	.67
전체	3.42	.46

<표 IV-2>에 의하면 아동의 영성지능 전체 평균점수는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초월성 3.39(SD=.61), 관계성 3.38(SD=.57), 삶의 의미와 목적 3.44(SD=.72), 통합적 에너지가 3.48(SD=.67)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이 영성지능의 하위 영역 중 신의 성장과 변화, 건강 및 내적평화를 나타내는 통합적 에너지와 자신이 경험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경향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 표 IV-3>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N=466)

하위영역	남(N=244)	여(N=222)	t
	M(SD)	M(SD)	
정서인식	2.25(.29)	2.15(.29)	3.691**
정서표현	2.00(.37)	1.97(.35)	.868
감정이입	2.16(.36)	2.23(.38)	-1.862
정서조절	1.83(.36)	1.78(.38)	1.601
정서활용	1.51(.24)	1.51(.24)	.017
전체	2.00(.21)	2.00(.21)	-.189

**p<.01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은 하위 영역 중 정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에서 남아(M=2.25)가 여아(M=2.15)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좀 더 잘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의 차이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의 차이

(N=466)

하위영역	남(N=244)	여(N=222)	t	
	M(SD)	M(SD)		
형이상학적 측면	초월성	3.39(.62)	3.37(.60)	.310
	관계성	3.37(.55)	3.38(.59)	-.200
실존적 측면	삶의 의미와 목적	3.48(.70)	3.38(.75)	1.507
	통합적 에너지	3.43(.68)	3.53(.67)	-1.559
전체	3.42(.46)	3.41(.46)	.190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영성지능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성지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상관관계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상관관계

(N=466)

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정서인식	1.00								
② 정서표현	.241**	1.00							
③ 감정이입	.114*	.179**	1.00						
④ 정서조절	-.094*	-.165**	-.950**	1.00					
⑤ 정서활용	.007	-.079	.408**	-.411**	1.00				
⑥ 초월성	.160**	.091*	.238**	-.246**	.121**	1.00			
⑦ 관계성	.106*	.126**	.355**	-.352**	.186**	.234**	1.00		
⑧ 삶의 의미와 목적	.142**	.127**	.528**	-.561**	.381**	.286**	.354**	1.00	
⑨ 통합적 에너지	.169**	.167**	.511**	-.519**	.143**	.263**	.346**	.526**	1.00
평 균	2.20	1.98	2.19	1.81	1.51	3.39	3.38	3.44	3.48
표준편차	.29	.36	.37	.37	.24	.61	.57	.72	.67

** p<.01 * p<.05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과 영성지능의 하위영역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그리고 감정이입과 정서활용은 영성지능 하위영역인 초월성과 관계성, 삶의 의미와 목적, 통합적 에너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며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정서활용을 잘 하는 아동일수록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개인의 내적 성장과 건강도 잘 통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감정이입과 삶의 의미와 목적($r=.528$, $P<.01$)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을 잘 하는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경향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이입과 통합적 에너지($r=.511$, $p<.01$)는 서로 정적상관을 나타냄으로서 감정이입을 잘 하는 아동들이 또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잘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조절은 모든 하위 영역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서조절과 삶의 의미와 목적($r=-.561$)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할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과 감정이입($r=-.950$, $P<.01$)은 분석결과 서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정서조절을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조절과 통합적 에너지($r=-.519$, $p<.01$)는 부적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즉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일수록 자신의 내적자원과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통합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통합적 에너지와 삶의 의미와 목적($r=.526$, $p<.01$)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정립하는 아동일수록 자신의 내적 평화와 신체적 건강도 잘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지능은 서로 상관이 있으며 어느 한쪽 지능만을 높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경험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두 가지 지능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아동의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영성지능의 하위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 표 IV-6>와 같다.

< 표 IV-6> 영성지능에 대한 정서지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영성지능							
		초월성		관계성		삶의 의미와 목적		통합적 에너지	
		B	β	B	β	B	β	B	β
정 서 지 능	정서인식	.270	.134**	.117	.061	.218	.089*	.238	.104*
	정서표현	.045	.027	.105	.066	.095	.048	.084	.045
	감정이입	-.004	-.002	-.058	-.038	-.244	-.127	.276	.153
	정서조절	-.360	-.217	-.534	-.345*	-1.150	-.585**	.709	-.387**
	정서활용	.084	.035	.152	.065	.528	.196**	-.209	-.075
상수		3.216		3.777		4.503		3.787	
Adj R ²		.071		.126		.348		.286	
F		8.084**		14.429**		50.643**		38.254**	

** p<.01 * p<.05

전체적으로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정서조절은 영성지능의 하위 영역 중 관계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통합적 에너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게 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정서인식은 초월성과 삶의 의미와 통합적 에너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이들을 잘 통합하는 능력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지능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를 보면 영성지능 중 초월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인식으로서 설명력은 7.1%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게 되면 일상적 경험에서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폭넓게 볼 수 있다.

관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조절로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12.6%다. 정서조절을 너무 잘하게 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으로서 설명력은 34.8%다. 정서를 잘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동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에서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할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혼란이 생겨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통합적 에너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인식으로서 설명력은 28.6%다.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것이 내적 평화와 신체적 건강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서조절은 부적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정서를 지나치게 조절 하면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 부분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 두 가지 지능 발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지능은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교우와의 관계 및 자아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므로 정서지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영성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영성지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두 가지 지능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감정이입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통합적인 에너지에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이 모든 하위 변인들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수록 개

인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내적인 부분도 잘 통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할수록 영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초월성과 관계성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및 통합적 에너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초월성에서는 정서인식이 정적영향을 그리고 관계성에서는 정서조절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는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정적영향을 그리고 정서조절은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합적 에너지에서는 정서인식과 정서조절이 정적영향을 그리고 정서활용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주관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서를 인식할 줄 알며 어려운 일 있을 때 현실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이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생활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결과다.

그리고 정서의 인식과 정서활용을 잘 할수록 삶의 목적과 의미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을 잘할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지나치게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서인식을 잘 할수록 개인의 성장과 신체적 건강 및 내적 통합 에너지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서조절을 할수록 통합적 에너지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잘 활용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내적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두 지능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서지능이 영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지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내재되어 있는 영성지능을 개발시켜 도덕성과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정서지능과 영성지능과의 관계를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교를 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을 다양화하고 성별이외의 변인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성지능 검사도구에서 형이상학적 측면과 실존적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위영역을 좀더 세분화 하여 측정할 수 있는 영성지능 검사 도구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정서조절을 잘 하게 되면 정서인식이나 감정이입, 정서활용과 영성지능의 하위 영역에서 초월성, 관계성, 삶의 의미와 목적, 통합적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추후에는 정서조절을 변수로 하여 다른 지능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민수(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희진(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인숙(2004).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도영(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중외10인(1998). **아동발달심리**. 서울:학지사
- 김경희(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토론.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모색: 유아교육(pp. 31-38). 한국어린이육영회.
- 김경희, 김경희(1998).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0(1), 43-56
- 김경희(1999).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민(1998). **응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 김송자(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연주(1998). EQ의 이해. 충남대학교 생활연구.
- 김재은 교수 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1996) **인지와 창의성의 심리학** 서울:창지사
- 김정희외2인(1997).**아동발달심리**. 서울:동문사
- 김철수역(2005), **무경계**, 서울:무우수

- 김혜정(2005). 초등학생의 음악적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노안영·강영신(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문용린(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성숙한 감성교육의 방향모색: 유아 교육. 한국어린이 육영회
- 문용린(1997), **종합적성 · 진로진단검사**, 서울: 대교출판사
- 문용린(2000)역. **도덕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부영호(2006).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광주카톨릭 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영환(1986). **C.G. 융 무의식분석**. 부산:선영사
- 양역관. 다카하시이와오역(1999). **초감각적 세계 인식**. 서울: 물병자리
- 여은선(2004). 초개인 심리학에 논의된 영성지능의 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복자 · 강경아(2000). “영성(spirituality)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별책 제 30권 제5호** 1145-1155
- 우은숙(2004). 형제 자매 구성 형태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기영(2005). 영성상담의 의미와 고찰. 광주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
- 윤세중(2003). **영성시대의 교양과학** 서울: 정신세계사.
- 윤진. 김인경(1988). **인간발달 8단계 이론 아동과 사회** .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열(2004). 영성증진 훈련프로그램이 영성, 자기 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2002). 암환자의 영성 개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2005). 초등 도덕 교육에서의 정서지능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형(1997). **아동발달**. 서울: 집문당.
- 이은정(2004). 유아의 정서지능과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성(1981).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혜정(2002).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영성과 직무성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미선(2005)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정신세계원(2006). 웰빙라이프 8월호.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조성자(2000). **어린이들에게 영성은 존재하는가?** 서울: 창지사.

조성자(2001). Montessori 교육사상에 나타난 영성의 의미, 몬테소리 교육연구 제 6집.

조용기(2006). 영성의 개념 분석과 그 교육적 시사. 대구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조혜정역(2000). **영성지능**. 룩스.

조효남역(2004). **모든 것의 역사**. 서울:대원출판사

최상순(1991). “일 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연구.

한미현(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한영란(2002). 영성의 교육적 의미, 내일을 여는 책.

Assaioli, R.(1965). *Psychosynthesis: A manual of principles and techniques*. New York: Viking Penguin.

Burkhardt(1989). *Spirituality :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Canda(1988). “*Spirituality, religious diversity, and social practice*”, *social case work*, 69(4), 238-247.

Elkins, D N. Hedstrom, L. J., Hughes, L. L., Leaf, J. A., & Saunders,

- C(1988). *Toward a Humanistic-phenomenological spiritualit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8, 5-18.*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Howden, J. W. (199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ity assessment scale.(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4(01), 166B.*
- James, W(1902).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Modern Library.*
- J. Miller(2000). *Holistic curriculu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 Miller(2000). *Education and the Sou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ung. C. G(1938). *Psychology and relig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slow, A. H. (1964). *Religions, value and peak experinence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198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alovey, P & Mayer, J.D . (in press). *The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Roger Walsh. M.D. Ph.D.(1999).Essental Spirituality. Wiley: Nww Ed Edituon .
- Seymour Boorstein M.D(1996).*Transpersonal Psychotherapy. State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Zohar, D., & Marshall, I (2000). *Spiritual Intelligence*영성지능(조혜정)역. 룩스.

Abstract

A Study of Co-relation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piritual Intelligence for Children

Ko, Eun Yi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Dr. Kim Ya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piritual intelligence. Specifically, the part these two aspects of the cognitive process play in children's educational programs.

For this study, subjects were 466 boys and girls from A and B elementary schools 6th grade in Jeju cit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to estimate the frequencies, mean,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questionnaire was examined by the Cronbach's α for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The t-test was employed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means of their gender.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employ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telligences. Multiple Regression was employed to find out how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s spiritual intellig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emotional state of others with the boys exhibiting a higher ability to empathiz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spiritual intelligence.

Third,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piritu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s spiritual intelligenc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by the gender,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istinction on the subordinate area of emotional intelligence called emotional recognition. This means that boys have a better recognition of other's emotional state than girls.

Emotional intelligence is a significant part of children's school friends relationship and self-growth, therefore, consistently developing educational environment for emotional intelligence is necessary.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related spiritual intelligence.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piritual intelligence shows that these two intelligences are related to each other.

Test results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Empathy reveale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ubfactor of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However emotional control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is factor. This means that an individual has the ability to set self-values well enough to sufficiently understand an other person's emotional state, which enables moral actions and an ability to coordinate the inner-self. But the data shows that an increase in one's ability to control their emotions resulted in a decrease in their spiritual intelligences such as transcendence, relatedness, meaning, the purpose of life and the integrated energy.

Fourth, Emotional recogni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ranscendence and emotional control had negative influence on relatedness. Emotional recognition and appli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Emotional control has a negative in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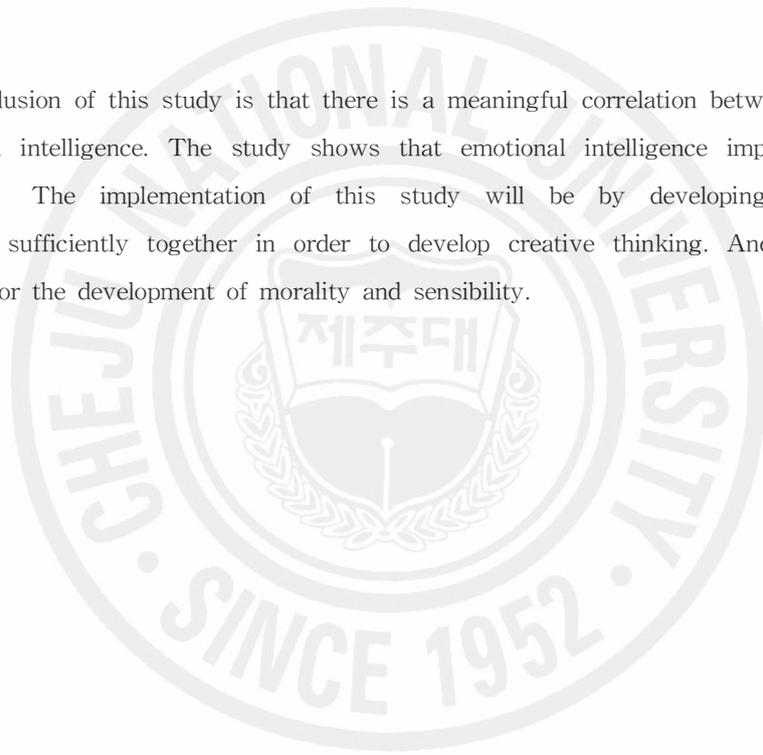
Integrated energy level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otional recognition and control while i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is shows that if a child is able to emotionally recognize themselves and other's than is also able to overcome the hardships of daily life. This also shows that if an individual is controlling their emotions, he/she has difficulty mak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Being better at emotional recognition and application, increases the purpose and the meaning of life. But being better at emotional control decreases the purpose and the meaning of life, so that being extremely good at controlling with ones emotions may not be preferable.

Emotional recognition also increases individual development, physical health, and integrated energy, while being better at emotional control it's decreases integrated energy.

An individual's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one's emotional state and applying it appropriately could facilitat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pursuit of meaning and purpose in one's life. And to accomplish internal unification by overcoming hardships of one's lif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and spiritual intelligence. The study shows that emotional intelligence impacts spiritual intelligence. The implementation of this study will be by developing. these two intelligences sufficiently together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thinking. And to spiritual intelligence for the development of morality and sensibility.





정 서 지 능 검 사

안녕하십니까?

본 검사는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므로 가능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검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자 : 고 은 이

학 교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연락처 : 011-699-9761

※ 질문사항이 있을 시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지능검사

초등학교 학년 반
성 별: 남 , 녀

※ 다음 중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1.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6. 나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7. 나는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8.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9. 나는 동생이나 동네 꼬마가 귀여워도, 안아 주거나 쓰다듬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0.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1. 나는 엄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2.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는 축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3.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는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4.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5. 길에서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6. 나는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7.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8.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9. 어머니나 친구의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0.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은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진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1. 울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2. 나는 육교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3.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4.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5. 나는 괴로울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6.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7.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8.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9.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0.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1.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는 웃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2. 짝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4. 어머니(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5.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도록 나는 양전하고 똑똑하게 행동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6.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7. 동생(친구)이 울 때, 나는 동생(친구)의 기분을 바꾸려 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8.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나는

- ①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② 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다.

39.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 친구 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실 때, 나는

- ①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어머니 친구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40. 나에게 화를 내거나 괴롭히는 친구에게, 나는

- 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다.
② 똑같이 화를 내거나 괴롭힌다.

41. 어머니께서 야단을 치실 경우, 나는

- 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② 어머니가 미워지고 짜증이 난다.

42.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선생님께서 나만 야단치실 때, 나는

- ① 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② 나도 잘못을 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43.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나는

- ① 오늘 시험을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 ② 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 된다.

44.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나는

- ①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45.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험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나는

- 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따진다.

46. 악기나 운동을 배우는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 나는

- ① 잘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화를 참고 더 열심히 연습한다.
- ② 내게 잘 맞지 않는 것은 빨리 그만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덥고 졸려서 짜증이 날 때, 나는

- 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 ② 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 성 지 능 검 사

안녕하십니까?

본 검사는 영성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검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조사자 : 고 은 이

학 교 :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연락처 : 011-699-9761

※ 질문사항이 있을 시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지능검사

초등학교 학년 반
성 별: 남 , 녀

※ 다음 중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1. 나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나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나는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어떤 계기를 통해 나에게 놀랍게 내재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 소극적인 아이가 리더십 프로그램을 참가 한 뒤 적극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나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어울린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나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나는 나의 한계를 잘 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다른 친구로부터 싫은 부탁을 들어도 기꺼이 들어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나는 작은 일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예) 운동장에 떨어진 휴지 줍기,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숨어있는 재능을 잘 파악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3. 나는 친구의 잘못된 점을 충고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4.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도와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5.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한다.

예) 다른 친구가 기쁠 때 나도 기쁘다, 다른 친구가 슬플 때 나도 슬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6.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하기 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7. 나는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8. 나는 자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9. 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느낀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